어휘력 자신감

초등 국어

5단계

정답과 해설

1주차

Day 01

본문 8쪽

1 (1) ○ (2) ○ (3) ×
2 (1) – ② (2) – ③ (3) – ①
3 원인, 원인, 결과, 원인, 결과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① (2) – ② (3) – ③
5 (3) ○
6 바다, 하늘, 고구마, 살며시
7 찬미
8 생일에∨케이크를∨두∨조각∨먹고,∨놀이터에서∨세∨시간∨동안∨놀았다.
9 (1) 휩쓸려서 (2) 떠밀려

1 (3) 청년은 자신에게 복이 없는 이유를 듣고 나서 신에게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2 (1) 청년은 몸이 편하면 일찍 죽는 운명이라 오래 살 수 있도록 신이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 여인의 짝은 여의주를 가진 사내인데, 아직 그런 사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무기는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두 개나 가졌기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고즈넉하다'는 '분위기 등이 조용하고 편안하다.', (2) '떠밀리다'는 '힘껏 힘이 주어져 앞으로 나아가게 되다.', (3) '수양하다'는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심 등을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5 '이유 – 까닭', '수양 – 수련'은 뜻이 서로 비슷한 관계(유의 관계)입니다. '얼굴 – 눈'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상하 관계)이고, '창조 – 모방'은 뜻이 서로 반대인 관계(반의 관계)입니다.

6 '무지개다리'는 '무지개'와 '다리', '비구름'은 '비'와 '구름', '산딸기'는 '산'과 '딸기', '책가방'은 '책'과 '가방'을 합쳐 만든 복합어입니다.

7 찬미가 한 말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은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태수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말.'인 "내 코가 석 자."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8 '두 조각', '세 시간'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은 앞말과 띄어 씁니다.

9 (1) '휩쓸리다'를 '휩쓸려서', (2) '떠밀리다'를 '떠밀려'라고 바꾸어야 문장에 어울리는 형태가 됩니다.

1주차

Day 02

본문 12쪽

1 (3) ○
2 (2) ×
3 (1) 범위, 강국 (2) 분야, 열풍
4 (2)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②
6 (1) ㄴ (2) ㄱ
7 (2) ○
8 (1) ② (2) ①
9 (1) 꿋꿋이 (2) 굳건히
10 (1) ② (2) ②
11 (1) 믿을∨만한 (2) 따를∨수밖에

1 이 글은 K-컬처의 시작과 분야의 확장, 세계 속의 영향력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2 K-컬처의 분야는 대중문화를 넘어서 의복, 음식, 한글, 순수 문화 예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친구들의 대화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는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비슷한 힘이나 실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각광'은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인기를 뜻합니다. '산실'은 '분만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기술 인재의 산실이었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루어 내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7 '박차'는 어떤 일을 빨리 되어 나가도록 더하는 힘을 뜻하며, 주로 '박차를 가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8 보기 의 낱말은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은 낱말을 '동형어'라고 합니다.

9 '꿋꿋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 뜻, 태도가 굳세고 곧게.'라는 뜻이고, '굳건히'는 '굳세고 튼튼하게.'라는 뜻입니다.

10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한류'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고, '도읍지'는 한 나라의 서울로 삼은 곳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11 (1)의 '믿을만한'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므로 '믿을 만한'이라고 띄어 써야 합니다. (2)의 '따를수밖에'에서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므로 '따를 수밖에'처럼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1주차

Day 03

본문 16쪽

1 (3) ×
2 (3) ○
3 (1) 보조금 (2) 농산물, 농산물
4 (1) 필리핀의 농업 (2) 우리나라의 농업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③ (3) – ②
6 (1) 생존 (2) 의존 (3) 자급
7 (1) ① (2) ③
8 (1) 늘리고 (2) 경쟁률
9 (1) 불가하다 → 불과하다 (2) 제배하여 → 재배하여
10 (1) 모자라서 (2) 흔들려

1 우리나라는 밀 소비량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필리핀 정부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사탕수수 같은 작물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자, 쌀농사 대신 이들 작물의 생산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에 따라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습니다.

3 글쓴이는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벼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농산물을 사 먹어 농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실패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은 필리핀의 농업, '자신의 옥돌'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의미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북새통'은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뜻이 비슷한 말로 '북새틈'이나 '북새판'이 있습니다.

7 (1) '장려하다'는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권하고 장려하다.'라는 뜻의 '권장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구축하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초 또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8 (1) 좌석 수를 원래보다 많게 한다는 뜻이므로 '늘리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율'이라고 쓰고, 나머지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률'이라고 씁니다.

9 (1)에서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뜻의 '불과하다'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에서는 '식물을 심어 가꾸어.'라는 뜻의 '재배하여'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1주차

Day 04

본문 20쪽

1 (1) ○ (2) ○ (3) ×
2 (3) ○
3 (3) ×
4 얼음, 바위, 전도, 단열, 대류, 훼손, 지구 온난화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② (3) – ③
6 (1) 산기슭 (2) 영향 (3) 환경
7 (1) ② (2) ①
8 (1) 냉기 (2) 암석
9 (1) 깊숙히 → 깊숙이 (2) 겹겹히 → 겹겹이
10 (1) 뒤덮고 (2) 받지

1 밀양 얼음골은 산기슭에 바위가 쌓여서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이지만, 지형이 독특하여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 난로 주변의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에 밀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내려와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대류'입니다.

3 밀양 얼음골에서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찬 공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은 산기슭에 바위가 쌓여 이루어진 독특한 지형, 열의 전도가 매우 낮은 암석과 그로 인한 단열 현상, 기체의 대류 현상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니다. '영향'은 어떤 것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것, '환경'은 생물에게 직접 ·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산기슭'은 산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을 뜻합니다.

7 문장의 의미에 알맞은 낱말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1)에서 쓰인 '조각'은 재료를 새기거나 깎아서 모양을 만든 것이나 그런 미술 분야를 뜻하고, (2)에서 쓰인 '조각'은 한 물건에서 따로 떼어 내거나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을 뜻합니다.

8 뜻이 비슷한 낱말은 서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은 찬 공기를 뜻하는 '냉기', (2)는 아주 큰 바위를 뜻하는 '암석'과 바꾸어 써도 뜻이 통합니다.

9 (1)에서 '위에서 밑바닥까지, 또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고 으슥하게.'의 뜻을 가진 낱말은 '깊숙히'가 아니라 '깊숙이'라고 써야 합니다. (2)에서 '여러 겹으로.'의 뜻을 가진 낱말은 '겹겹히'가 아니라 '겹겹이'라고 써야 합니다.

10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상황에 따라 모양이 바뀌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주차

Day 05

본문 24쪽

1 (2) ○
2 (1) – ① (2) – ③ (3) – ②
3 (1) 표류 (2) 외교 (3) 교통
4 (2) ○
5 광주, 대전,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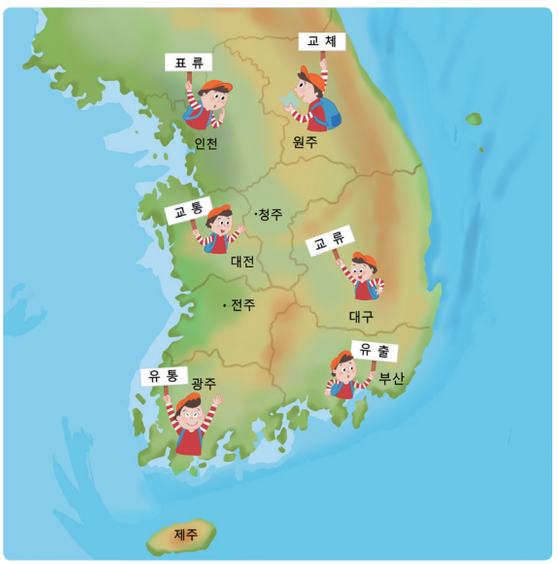
1 '교류(交流), 교체(交替), 교통(交通), 외교(外交)'에 공통으로 쓰인 '교(交)'는 모두 '사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유통(流通)'은 '화폐나 물품 등이 널리 쓰임.'이라는 뜻, '유출(流出)'은 '귀한 물건이나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외부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이라는 뜻, '문물 교류(文物交流)'는 '문화의 모든 산물이 서로 오고 감.'이라는 뜻입니다.

3 '교통(交通)'은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의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오고 가는 일.'이라는 뜻, '외교(外交)'는 '다른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뜻, '표류(漂流)'는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흘러감.'이라는 뜻입니다.

4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우승을 한 것이므로 빈칸에는 '특정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사물, 제도 등을 다른 사람, 사물, 제도 등으로 바꿈.'이라는 뜻의 '교체(交替)'가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5 주어진 문장에서 ①에는 '교체', ②에는 '유출', ③에는 '유통', ④에는 '교류', ⑤에는 '교통', ⑥에는 '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욱이가 여행한 경로는 '원주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입니다.



2주차

Day 06

본문 30쪽

1 (1) ○ (2) × (3) ○
2 ②
3 (3) ○
4 노력, 발전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① (3) – ②
6 (2) ○
7 손수
8 (3) ○
9 (1) 엎드려 (2) 덮고 (3) 새벽에
10 (1) ② (2) ① (3) ①
11 (1) 켜져 (2) 기여할 (3) 흡족하게

1 세종은 책을 읽다 새벽이 되어서야 책상에 엎드려 잠든 신숙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손수 덮어 주었습니다.

2 세종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신숙주에게 손수 덮어 준 이유는 노력하는 신하의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3 "신숙주와 세종처럼 발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구르는 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라는 문장을 통해 '세종'과 '신숙주'를 '구르는 돌'에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라는 속담은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몰두하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2)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3) '정진하다'는 '힘쓰고 노력하여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6 '불신'은 '믿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신뢰'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7 '손수'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8 (1) '식은 죽 먹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2)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속담은 비밀스러운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결국 들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노력하고 단련해야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 (1) 내가 동생을 놀라게 한다는 뜻이므로 '놀래'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2) 지우가 벌레를 보고 놀란 상황이므로 '놀라'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3) 천둥 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상황이므로 '놀랐다'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2주차

Day 07

본문 34쪽

1 (1) × (2) ○ (3) ×
2 정벌, 설득, 계승
3 서아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② (2) – ① (3) – ③
5 (1) 요충지 (2) 담판
6 (1) 눈엣가시, 배척 (2) 우호, 수교
7 (1) ② (2) ①
8 (1) 짓도록 (2) 빼앗는 (3) 맺기로
9 (1) 잡았다 (2) 갈 것이다 (3) 반드시

1 (1)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 항복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서희가 직접 담판을 짓겠다고 나섰고 결국 성종을 설득시켰습니다. (3) 소손녕 장군이 서희에게 강동 6주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서희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차지한 것입니다.

2 '정벌'은 '적이나 나쁜 무리를 힘으로 물리침.', '설득'은 '상대방이 그 말을 따르거나 이해하도록 잘 설명하거나 타이름.', '계승'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 업적 등을 물려받아 계속 이어 나감.'이라는 뜻입니다.

3 '어깨가 무겁다'는 힘겹고 중대한 일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눈엣가시, 배척하다, 몰아내다'는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멀리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호를 다지다, 수교를 맺다, 가까이 지내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원만히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7 (1)에서 '손을 잡다'는 서로 도와서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의 관용어이고, (2)에서 '손을 떼다'는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8 (1) '짖다'는 개가 크게 소리를 내거나 새가 시끄럽게 지저귄다는 뜻입니다. (2) '빼앗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강제로 없애거나 자기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3) '맺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9 (1)에서 고양이가 생쥐를 잡는 것이므로 '잡았다'가 알맞은 표현입니다. '잡혔다'는 '생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로 쓰일 때 어울립니다. (2)에서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므로 서술어로 '갈 것이다'가 어울립니다. (3)에서 '~할 것이다'와 어울리는 말은 '반드시'입니다. '절대로'는 '~하지 않겠다'와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2주차

Day 08

본문 38쪽

1 (3) ○
2 (1) ○
3 (1) – ②, ③ (2) – ①, ④
4 (1)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① (3) – ② (4) – ④
6 (1) 명분 (2) 선구자 (3) 사절단
7 (2) ○
8 (1) 허례허식 (2) 이용후생
9 (1) 얽매여 (2) 보따리 (3) 머물러
10 (1) ㉠ 어렵지 않다 (2) ㉠ 좋아하지 않는다

1 박지원은 당시 조선보다 문명이 발달한 청나라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난하고 힘이 약한 조선이 '정저지와'와 같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넓은 길 위로 수레들이 바삐 오갔고 사람들에게서 궁핍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청나라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선에도 수레가 있었지만, 바퀴가 완벽하게 둥글지 않았고 길도 험하여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4 박지원은 당시 조선보다 문명이 발달한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고 무시하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선의 선비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1) '개밥에 도토리'는 따돌림을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3) '꿀 먹은 벙어리'는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8 (1)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나 그런 예절을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2)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9 (1) '얽매이어'가 줄어든 말이므로 '얽매여'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 '보자기에 물건을 싸 놓은 것.'을 뜻하는 말은 '봇다리'가 아니라 '보따리'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3)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에 그쳐.'를 뜻하는 말은 '머물어'가 아니라 '머물러'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10 '여간'은 주로 '~지 않다', '~이 아니다'와 같은 말과 함께 쓰여서 '그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 대단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주차

Day 09

본문 42쪽

1 (1) × (2) ○ (3) ×
2 횃불, 다도해, 양식장
3 (1) – ③ (2) – ② (3) – ①
4 ③ → ① → ④ → ②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② (3) – ①
6 (1) 해안 (2) 선착장 (3) 다도해
7 (1) ×
8 (1) ① (2) ① (3) ②
9 (1) 돗 → 돛 (2) 장간 → 장관 (3) 끈이지 → 끊이지
10 (1) 맺혀 (2) 부딪히는 (3) 올라

1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에 속하는 해남 땅끝 마을은 한반도(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반도)의 남쪽 끝으로,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기행문의 3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입니다. '여정'은 여행지에서 글쓴이가 거쳐 간 장소, '견문'은 여행지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내용, '감상'은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국토의 형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낱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봅니다.

6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니다.

7 '언덕길, 내리막길, 골목길, 시골길'에서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뜻합니다. '꿈길'은 '꿈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과정. 또는 꿈을 꾸는 과정.'이라는 뜻으로, '-길'은 일부 낱말 뒤에 붙어 '과정', '도중', '중간'의 뜻을 나타냅니다.

8 (1)에서 '오랜만에'는 '어떤 일이 있은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라는 뜻을 가진 '오래간만에'의 준말이고, '오랫만에'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2)에서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라는 뜻이고, '설레이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3)에서 '흩뿌리다'는 '마구 흩어지게 뿌리다.'라는 뜻이고, '흐뿌리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9 (1)에서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돗'이 아니라 '돛'이라고 써야 합니다. (2)에서 '훌륭하고 대단한 광경.'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장간'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써야 합니다. (3)에서 '계속하거나 이어져 있던 것이 끊어지게 되지.'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끈이지'가 아니라 '끊이지'라고 써야 합니다.

2주차

Day 10

본문 46쪽

1 (1) ○
2 (1) – ① (2) – ③ (3) – ②
3 (1) ② (2) ①
4 (1) 제도 (2) 난이도 (3) 정도
5 ❶ 난이도 ❷ 속도 ❸ 정도 ❹ 제도 ❺ 졸속 ❻ 속전속결

1 '속도(速度), 고속(高速), 졸속(拙速), 속전속결(速戰速決)'에 공통으로 쓰인 '속(速)'은 모두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고속(高速)'은 '매우 빠른 속도.'라는 뜻, '졸속(拙速)'은 '허술하고 어설프며 빠름. 또는 그런 태도.'라는 뜻, '속전속결(速戰速決)'은 '어떤 일을 빨리 진행하여 빨리 끝냄.'이라는 뜻입니다.

3 (1)에서 '정도(程度)'는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좋고 나쁨이나 더하고 덜한 정도로 나타내는 분량이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이나 정당한 도리.'는 '정도(正道)'의 뜻입니다. (2)에서 '난이도(難易度)'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라는 뜻입니다. '같은 일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횟수.'는 '빈도(頻度)'의 뜻입니다.

5 주어진 문장에서 ❶에는 '난이도(難易度)', ❷에는 '속도(速度)', ❸에는 '정도(程度)', ❹에는 '제도(制度)', ❺에는 '졸속(拙速)', ❻에는 '속전속결(速戰速決)'이 들어가야 합니다.



3주차

Day 11

본문 52쪽

1 (2) ○ (3) ○
2 (3) ○
3 문신, 무신
4 (1) – ② (2) – ① (3) – ③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① (3) – ②
6 (1) 무시 (2) 호소 (3) 우대
7 (1) ③ (2) ① (3) ②
8 (1) ○
9 (1) 모르는 채 (2) 거른 채
10 맨손, 나무꾼, 햇곡식

1 의종은 문신들과 함께 잔치를 자주 열었고, 의종이 문신들과 잔치를 즐길 때에 무신들은 끼니를 거르며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2 '업신여기다'는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는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존중하다'는 '의견이나 사람을 높이어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3 고려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문신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과 무시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지위가 낮거나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거르다'는 '차례대로 나아가다가 중간의 어느 순서나 자리를 빼고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2) '핍박하다'는 '강하게 억눌러서 몹시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3) '빈정거리다'는 '은근히 비웃으며 자꾸 비꼬는 말을 하거나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6 (1) '무시하다'는 '얕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2) '호소하다'는 '어렵거나 억울한 사정을 알려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3) '우대하다'는 '특별히 잘 대우하다.'라는 뜻입니다.

8 (2)에 어울리는 속담 표현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9 '~은/는' 뒤에 붙어 '이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채'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10 '맨손'은 '맨– + 손', '나무꾼'은 '나무 + –꾼', '햇곡식'은 '햇–+ 곡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방, 구름, 바늘'은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입니다.

3주차

Day 12

본문 56쪽

1 (1) ○ (2) × (3) ×
2 민석
3 차별, 양보, 저항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정당 (2) 참가 (3) 요구
5 (1) ○
6 위험
7 (1) ○
8 (1) 않고 (2) 앉고 (3) 안고
9 (1) 몇몇 (2) 수차례 (3) 의미 있는

1 (2)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버스 안 타기 운동'은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하여 흑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3) 1956년 11월 13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인종 분리 버스가 위헌(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을 어김.)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미국의 인종 차별은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은 더럽고 천하다고 여기는 편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바탕으로 하여 생각해 보면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는 억울하고 불평등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나 물건 등을 내주거나 넘겨 줌.',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견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부당하다'는 '도리에 어긋나서 정당하지 않다.', '동참하다'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같이 참가하다.', '강요하다'는 '어떤 일을 강제로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5 (2)는 '개발하다'의 뜻, (3)은 '출발하다'의 뜻입니다.

7 '물불을 가리지 않다'의 의미에 맞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황은 (1)입니다.

8 '않다'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 '앉다'는 '윗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이나 바닥에 몸을 올려놓다.', '안다'는 '두 팔을 벌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품 안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각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9 (1) '몇몇'은 '몇'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며 붙여 씁니다.
(2) '수차례', '수개월', '수백만' 등에서 '수(數)–'는 '약간'을 의미하며 뒤에 오는 글자와 붙여 씁니다.
(3)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는 띄어 씁니다.

3주차

Day 13

본문 60쪽

1 (1) ○ (2) ○ (3) ×
2 시언
3 그릇, 시간, 노력
4 ㉠ 노력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① (3) – ②
6 (1) 독학 (2) 낙제 (3) 전공
7 (3) ○
8 (1) ○
9 (1) 만년필 (2) 계기 (3) 단계
10 (1) ① (2) ③ (3) ②

1 아인슈타인은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었고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스위스 특허청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2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관심 분야 외에는 흥미를 갖지 못했고 수학, 과학 외에는 낙제 수준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며 의문을 갖고 생각하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4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한다거나 평생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첨단'은 시대나 학문, 유행 등의 가장 앞서는 자리를 뜻하는 낱말로, '첨단을 걷다.', '첨단을 달리다.' 등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8 (1)에는 크게 될 사람은 늦게라도 성공한다는 말인 '대기만성'이 들어가기에 알맞습니다. (2)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 '개과천선'이 들어가기에 알맞습니다.

9 (1) '펜의 몸통에 잉크를 넣어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든 필기도구.'는 '만연필'이 아니라 '만년필'입니다.
(2)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결정되도록 하는 원인이나 기회.'를 뜻하는 낱말은 '개기'가 아니라 '계기'입니다.
(3) '일이 변화해 나가는 각 과정.'을 뜻하는 낱말은 '단개'가 아니라 '단계'입니다.

10 보기 와 같이 '낳다'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의어'에 속합니다.

3주차

Day 14

본문 64쪽

1 (1) ○ (2) × (3) ×
2 저온 살균법
3 (1) ② (2) ③ (3) ① (4) ④
4 면역력, 백신, 감염병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③ (3) – ②
6 (1) 부패 (2) 세균 (3) 면역력
7 (3) ○
8 (1) ① (2) ①
9 (1) 위험 → 위협 (2) 시험 → 실험
10 (1) 몰두하여 (2) 깨닫고

1 어려서부터 관찰력이 뛰어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파스퇴르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파스퇴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포도밭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2 주어진 내용은 파스퇴르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3 전기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평가'입니다. '인물'은 인물의 출생, 성장, 죽음 등, '사건'은 인물의 활동과 업적, '배경'은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인물의 개인적인 환경, '평가'는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4 파스퇴르는 백신을 만들고 예방 접종법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위협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 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부패'는 단백질이나 지방 등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썩는 것, '세균'은 크기가 매우 작고 생김새가 단순한 생물, '면역력'은 몸 밖에서 들어온 병균을 이겨 내는 힘을 뜻합니다.

7 낱말의 포함 관계(상의어, 하의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질병'은 '감기, 폐렴, 홍역, 심장병, 소아마비'를 포함하는 낱말이고, '감기, 폐렴, 홍역, 심장병, 소아마비'는 '질병'에 포함되는 낱말입니다.

8 (1)에서 '겪다'는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라는 뜻으로, '격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2)에서 '개발하다'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다.'라는 뜻으로, '계발하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9 (1)에서는 '위험'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함.'이라는 뜻을 가진 '위협'이라고 써야 합니다. (2)에서는 '시험'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함.'이라는 뜻을 가진 '실험'이라고 써야 합니다.

3주차

Day 15

본문 68쪽

1 (3) ○
2 (1) – ② (2) – ① (3) – ③
3 (2) ×
4 (1) 별개 (2) 특성 (3) 별도
5 ❶ 특별 ❷ 특징 ❸ 차별화 ❹ 대서특필

1 '특별(特別), 특성(特性), 특징(特徵), 대서특필(大書特筆)'에 공통으로 쓰인 '특(特)'은 모두 '특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특징(特徵)'은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달라 눈에 띄는 점.'이라는 뜻, '특별(特別)'은 '보통과 차이가 나게 다름.'이라는 뜻, '특성(特性)'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보통과 매우 차이가 나게 다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3 '별도(別途)'와 '차별화(差別化)'에 쓰인 '별(別)'은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주부'의 '별(鼈)'은 '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별개(別個)'는 '서로 달라 관련되는 것이 없음.'이라는 뜻, '별도(別途)'는 '원래의 것에 덧붙여 추가되거나 따로 마련된 것.'이라는 뜻, '특성(特性)'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보통과 매우 차이가 나게 다른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5 주어진 내용에서 ❶에는 '특별(特別)', ❷에는 '특징(特徵)', ❸에는 '차별화(差別化)', ❹에는 '대서특필(大書特筆)'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대서특필(大書特筆)'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쓴다는 뜻으로,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서 어떤 사건을 특별히 중요한 기사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4주차

Day 16

본문 74쪽

1 (1) ○ (2) ○ (3) ×
2 ③ → ⑤ → ② → ①
3 (3) ○
4 나쁜, 고치기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③ (3) – ②
6 (1) ① (2) ②
7 (1) 거칠 (2) 손
8 (1) ○
9 (1) 만만치 (2) 익숙지 (3) 서슴지
10 (1) 비공개 (2) 불공평

1 (3) 손오공은 부처님에게 잡혀 500년 동안 바위산에 갇히는 벌을 받았습니다.

2 손오공은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손에 넣었고, 요괴들과 의형제를 맺은 뒤 저승에 가서 수명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직책을 얻은 뒤에도 자신이 돌보던 복숭아를 허락 없이 모두 따 먹고, 걸핏하면 연회를 망쳐 놓았으며,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 준다는 약도 몰래 훔쳐 먹었습니다.

3 손오공은 힘이 세고 담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술을 익혀 거칠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성격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담력'은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2) '서슴다'는 '어떤 행동을 선뜻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3) '제압하다'는 '강한 힘이나 기세로 상대를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6 (1) '비범하다'는 '수준이 보통을 넘어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뛰어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 '으름장'은 '말과 행동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짓.'이라는 뜻으로 '협박'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거칠 것 없다'는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손에 넣다'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8 "제 버릇 개 줄까."라는 속담은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주 지각을 하던 민수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지각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어울립니다.

9 (1), (2)는 '만만하지, 익숙하지'가 줄어든 말로, '-하지' 앞에 'ㄴ, ㄹ, ㅁ, ㅇ'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치'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지'라고 씁니다. (3) '서슴지'는 '서슴하다'가 아닌 '서슴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서슴지'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0 '공개'의 앞에는 '비-'를 붙이고, '공평'의 앞에는 '불-'을 붙여 '아님'의 뜻을 더할 수 있습니다.

4주차

Day 17

본문 78쪽

1 (1) ○ (2) ○ (3) ×
2 (1) 희생 (2) 독립 (3) 축복
3 ② → ④ → ① → ③
4 아쉬움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② (2) – ① (3) – ④ (4) – ③
6 (1) ① (2) ②
7 (1) ○
8 (2) ○
9 (1) 스러져 (2) 걸치고
10 (1) [축뽁] (2) [국빱]

1 남자현은 하얼빈에서 과일 상자에 들어 있는 무기를 건네받기로 하였지만, 무기를 손에 넣기도 전에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희생'은 '어떤 사람이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등을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독립'은 '한 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가짐.', '축복'은 '행복을 빎. 또는 그 행복.'을 뜻합니다.

3 남자현은 독립군 동지 공서를 만난 뒤에 죽은 남편의 군복을 입고 거사를 치르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보름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다가 쇠약해진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4 '그리움'은 어떤 대상을 몹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아쉬움'은 미련이 남아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부끄러움'은 볼 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1) '저항하다'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거나 견디다.'라는 뜻으로 '대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투항하다'는 '적에게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2) '쇠약하다'는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뜻으로 '병약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유약하다'는 '성격이나 태도 등이 부드럽고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7 '가슴에 새기다'는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2) '마음속 깊이 상처를 주다.'라는 뜻은 '가슴에 못을 박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 (1) '쓰러져'는 '서 있던 것이 한쪽으로 쏠리어 넘어져.'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죽거나 망해.'라는 뜻의 '스러져'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 '옷이나 장신구를 가볍게 입거나 걸고.'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거치고'가 아니라 '걸치고'입니다.

10 앞 글자의 끝소리 'ㄱ'의 영향을 받아서 뒷 글자의 첫소리가 [ㅃ]으로 소리 납니다.

4주차

Day 18

본문 82쪽

1 (1) × (2) ○ (3) ○
2 (1) 증언, 정황, 예견 (2) 전함 (3) 학익진, 유인
3 ②
4 준비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② (2) – ③ (3) – ①
6 (1) 유인 (2) 증언 (3) 주둔 (4) 공략
7 (2) ○ (3) ○
8 민준
9 ①
10 (1) 핑계 (2) 바닷길 (3) 무릅쓰고

1 일본의 전함은 속도는 빠르지만 튼튼하지 못했고, 화포의 힘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3 이 글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 정신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유비무환'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① 대기만성(大器晩成): 크게 될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을 한 끝에 늦게 성공함.
②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③ 정저지와(井低之蛙): 넓은 세상의 형편을 모르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태도나 행동도 자신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군사'와 '병사'는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입니다. (1) '화포'는 화약의 힘으로 탄환을 쏘는 무기로, '무기'라는 낱말에 포함되는 낱말입니다. (2) '전함'과 '군함'은 전투할 때 쓰는 배로,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입니다. (3) '침략'과 '침공'은 모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9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유비무환'과 반대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금방 쉽게 퍼지니 말조심하라는 뜻이고, ③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 (1)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일을 내세움.'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핑개'가 아니라 '핑계'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바다길'이 아니라 '바닷길'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3)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참아 견디고.'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무릎쓰고'가 아니라 '무릅쓰고'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4주차

Day 19

본문 86쪽

1 국가인권위원회
2 (1) – ③ (2) – ① (3) – ②
3 인권 침해, 지시, 헌법, 자유, 권위, 복종, 비자발적, 대책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② (2) – ① (3) – ③
5 (1) 권위 (2) 침해 (3) 권고
6 (1) 지난해 (2) 마음씨
7 (1) 비 (2) 비
8 (1) 새워야 → 세워야 (2) 뒤정리 → 뒷정리
9 (1) 부당한 (2) 중단하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독립적인 국가 기관입니다.

2 이 글은 신문 기사로,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 밖에도 기사문은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하게 써야 하고(평이성),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보도성)는 특성이 있습니다.

3 주어진 신문 기사를 읽고 중심 내용에 따라 세부 내용을 간추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 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니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동의를 구하며 충고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뜻, '권위'는 '특별한 능력, 자격, 지위로 남을 이끌어서 따르게 하는 힘.'이라는 뜻, '침해'는 '남의 땅이나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해를 끼침.'이라는 뜻입니다.

6 떠올린 낱말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1)에서 '작년'은 '이번 해의 바로 전 해.'라는 뜻으로 '지난해'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에서 '심성'은 '타고난 마음씨.'라는 뜻으로 '마음씨'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7 보기 의 '반–'은 '반대되는'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부–'나 '불–'은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비–'는 '아님'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자발적인'의 앞에는 '비–'가 붙어서 '아님'의 뜻을 더해 줍니다.

8 (1)에서 '계획이나 결심을 확실히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새우다'가 아니라 '세우다'라고 써야 합니다. (2)에서 '일의 끝부분을 마무리 짓거나 일이 끝난 후 어지러운 것을 바르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뒤정리'가 아니라 '뒷정리'라고 써야 합니다.

4주차

Day 20

본문 90쪽

1 (2) ○
2 (1) 자본 (2) 기본 (3) 본질
3 (1) 기초 (2) 기준 (3) 기반
4 (2) ○
5 ❶ 자본 ❷ 본질 ❸ 기반 ❹ 기준 ❺ 기본 ❻ 기초

1 '기반(基盤), 기본(基本), 기준(基準)'에 공통으로 쓰인 '기(基)'는 모두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 '장사나 사업 등을 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돈.'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자본', (2) '무엇을 이루는 데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기본', (3) '어떤 사물이 그 사물 자체가 되게 하는 원래의 특성.'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본질'입니다.

3 '기초(基礎)'는 '사물이나 일 등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는 뜻, '기준(基準)'은 '구별하거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교하도록 정한 대상이나 잣대.'라는 뜻, '기반(基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대화 내용으로 보아, 나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학급 회장 선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격적(本格的)'은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5 주어진 문장에서 ❶에는 '자본(資本)', ❷에는 '본질(本質)', ❸에는 '기반(基盤)', ❹에는 '기준(基準)', ❺에는 '기본(基本)', ❻에는 '기초(基礎)'가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5주차 Day 21

본문 96쪽

1 (3) ○
2 보석, 가치, 세공, 원석, 가치, 세공
3 훌륭하고 좋은, 쓸모, 가치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③ (2) – ② (3) – ①
5 장신구
6 (1) ○
7 (2) ○
8 (1) 빛나다 (2) 세공하다
9 (1) [막따] (2) [북따] (3) [물께] (4) [발찌도]
10 (1) 희귀한 (2) 발휘하여 (3) 부여하고

1 보석은 물렁하지 않고 단단한 특징이 있으며, 희귀한 광물입니다.

3 보석과 구슬의 공통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슬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므로 '거칠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보석과 구슬의 차이점에 '구슬을 꿰어 장신구를 만들면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신구를 만드는 행위는 '쓸모' 있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그렇게 하면 '가치'가 드러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반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는 모두 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장신구의 한 종류입니다.

6 '영롱한'은 '광채가 찬란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롱한 광채'라는 표현은 '광채가 찬란한 광채.'라는 뜻이 되므로 같은 의미가 두 번 쓰인 표현입니다.

7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라는 속담은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은 어떤 것에 크게 놀란 사람은 비슷한 물건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뜻입니다.

8 (1)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 '빛나–'에 '–다'를 붙인 '빛나다'가 기본형입니다. (2)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 '세공하–'에 '–다'를 붙인 '세공하다'가 기본형입니다.

9 (1), (2) 겹받침 'ㄺ' 뒤에 'ㄱ'이 아닌 'ㄷ'이 왔으므로 'ㄺ'을 [ㄱ]으로 발음합니다.
(3), (4) 겹받침 'ㄺ' 뒤에 'ㄱ'이 왔으므로 'ㄺ'을 [ㄹ]로 발음합니다.

10 (1) '그 생물은 매우 희귀한 것이다.', (2) '글쓰기 재능을 발휘하여 작가가 되었다.', (3) '나는 졸업 여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주차 Day 22

본문 100쪽

1 (1) ○ (2) ○ (3) ×
2 믿음, 발전
3 (1) 진행 (2) 개선 (3) 자만, 봉사
4 (2)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① (3) – ②
6 ②
7 (1) ③ (2) ② (3) ①
8 (3) ○
9 (1) 못∨먹는∨감∨찔러나∨보자.
(2) 더∨나아가∨한∨달에∨한∨번씩
10 (1) [구펴] (2) [이켜]

1 정우는 전교 학생 회장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정우는 '매일 아침 음악 방송 진행하기, 소리함을 설치하여 건의 사항을 받아 개선하고 반영하기, 자만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기'라는 세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4 '발 벗고 나서다'는 '학급의 일에 발 벗고 나서다.', '환경 보전 운동에 발 벗고 나서다.'처럼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①과 ③은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끼리 짝 지어진 것이고, ②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낱말끼리 짝 지어진 것입니다.

7 (1)에서 '발'은 '걸음.'을 뜻합니다. (2)에서 '발'은 '가구 등의 밑을 받쳐 균형을 잡고 있는, 짧게 튀어나온 부분.'을 뜻합니다. (3)에서 '발'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뜻합니다.

8 '발 벗고 나서다'처럼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어는 '팔을 걷어붙이다'입니다. '손을 씻다'는 '부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관계를 끊다.', '발이 넓다'는 '친하게 지내거나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어입니다.

9 '못', '더'와 같이 뒤에 오는 말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말은 띄어 씁니다. 또한 '집 한 채', '열두 명'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도 앞말과 띄어 씁니다.

10 (1) '굽혀'는 '굽'의 'ㅂ'이 'ㅎ'과 만나 [ㅍ]으로 소리 납니다. → 굽혀[구펴]
(2) '익혀'는 '익'의 'ㄱ'이 'ㅎ'과 만나 [ㅋ]으로 소리 납니다. → 익혀[이켜]

5주차

Day 23

본문 104쪽

1 (1) ○ (2) × (3) ○
2 (1) 삼족오 (2) 구애 (3) 오작교 (4) 봉양
3 안갚음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② (2) – ④ (3) – ① (4) – ③
5 (1) 봉양 (2) 구애 (3) 징조 (4) 경계
6 (1) 앙갚음 (2) 안갚음
7 (1) 후손 (2) 승낙 (3) 흉조
8 (1) 않을래 (2) 안 (3) 않았다
9 (1) 어떻게 (2) 어떡해

1 이밀은 늙으신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관직을 거절했습니다.

2 '삼족오'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태양 안에서 산다는 세 발 달린 까마귀로, 고구려를 상징합니다. '구애'는 이성에게 사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오작교'는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다는 다리로, 칠월 칠석날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 이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봉양'은 아랫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경계'는 '뜻밖의 사고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조심함.', '구애'는 '이성에게 사랑을 구함.', '봉양'은 '아랫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섬김.',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나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6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안갚음'이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은 '앙갚음'입니다.

7 (1) '조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이고, '후손'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2)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승낙'은 남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3) '길조'는 좋은 일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새이고, '흉조'는 나쁜 징조를 알린다고 생각하여 흉악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8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로 '점심을 안 먹었다.' 또는 '도서관에 안 갔다.'와 같이 쓰입니다. '않'은 '아니하다'가 줄어든 말로 '점심을 먹지 않았다.' 또는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와 같이 쓰입니다.

9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게'가 붙은 말입니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 끝에 위치해 서술어로 쓰입니다.

5주차

Day 24

본문 108쪽

1 (1) × (2) ○ (3) ○
2 (1) – ③ (2) – ① (3) – ②
3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저탄소, 일회용품, 재활용, 플러그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③ (2) – ① (3) – ②
5 (1) 평형 (2) 생존 (3) 생태계 (4) 일석이조
6 (1) ① (2) ②
7 (1) ① (2) ②
8 (1) 배출양 → 배출량 (2) 소금량 → 소금양
9 (1) 소모하지 (2) 태워

1 전기, 교통, 냉난방, 자원 재활용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저탄소 생활은 전 지구인이 참여하는 세계적 캠페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생존'은 '살아 있거나 살아남음.', '평형'은 '사물이나 생각 등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음.',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여러 생물들이 서로 적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진 자연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일석이조'는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라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입니다.

6 보기 의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 용기(容器)와 '겁이 없고 씩씩한 기운.'을 뜻하는 용기(勇氣)는 형태만 같을 뿐이지 뜻이 다른 낱말입니다.

7 (1)에서 '썩다'는 '음식물이나 자연물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체가 뭉개지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②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데 합치다.'라는 뜻의 '섞지'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에서 '꽂다'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것을 박아 세우다.'라는 뜻으로, ①에서는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라는 뜻의 '꼽아'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8 '배출(排出)'은 한자어이므로 '-량'이 붙어 '배출량'이라고 써야 합니다. '소금'은 고유어이므로 '-양'이 붙어 '소금양'이라고 써야 합니다.

5주차

Day 25

본문 112쪽

1 (1) – ② (2) – ① (3) – ③
2 (2) ○
3 (1) – ① (2) – ② (3) – ③
4 (1) 통보 (2) 통과 (3) 통화 (4) 통과 의례
5 (1층부터) 과유불급, 과정, 과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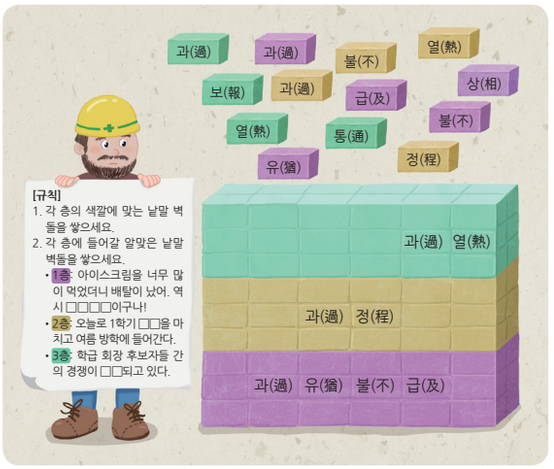
1 '과정(過程)'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 '과열(過熱)'은 '지나치게 뜨거워짐.'이라는 뜻, '통과 의례(通過儀禮)'는 '출생, 성년, 결혼, 죽음 등 사람이 살면서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하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2 빈칸에는 '지나치다'의 의미를 지닌 '지날 과(過)'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3 '통과(通過)'는 '어떤 장소나 때를 거쳐서 지나감.'이라는 뜻, '통보(通報)'는 '어떤 명령이나 소식 등을 말이나 글로 알림.'이라는 뜻, '일맥상통(一脈相通)'은 '생각, 상태, 성질 등이 서로 통하거나 비슷해짐.'이라는 뜻입니다.

4 '통과(通過)'는 '어떤 장소나 때를 거쳐서 지나감.'이라는 뜻, '통보(通報)'는 '어떤 명령이나 소식 등을 말이나 글로 알림.'이라는 뜻, '통화(通貨)'는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화폐.'라는 뜻, '통과 의례(通過儀禮)'는 '출생, 성년, 결혼, 죽음 등 사람이 살면서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하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5 1층에는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들어가야 하고, 2층에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의 '과정(過程)'이 들어가야 합니다. 3층에는 '지나치게 뜨거워짐.'이라는 뜻의 '과열(過熱)'이 들어가야 합니다.



6주차

Day 26

본문 118쪽

1 (1) × (2) ○ (3) ×
2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3 (3) ○
4 예상, 재난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① (2) – ③ (3) – ②
6 (1) ○
7 (1) ○
8 (1) ○
9 (1) ② (2) ①
10 (1) 베어 (2) 계약 (3) 몰수

1 (1) 안토니오의 배는 베니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난파되었습니다. (3) 샤일록이 증서에 적힌 내용을 집행하려 할 때, 법관은 피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은 계약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만약 제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 근처의 살 1파운드를 베어 내겠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 달라고 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샤일록의 성격은 '인정이 없이 매섭고 독하다.'라는 뜻인 '잔인하다'와 '동정심이나 인정이 없어 마음씨가 몹시 쌀쌀하고 모질다.'라는 뜻인 '무자비하다'가 어울립니다.

3 이 글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은 바사니오가 받은 편지에 적힌 내용을 말합니다. 편지에는 안토니오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망연자실하다'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다.'라는 뜻입니다. '넋이 나가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정신이 나가다.'라는 뜻으로, '망연자실하다'와 뜻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7 '법정–재판정'과 '가끔–이따금'은 뜻이 서로 비슷한 관계(유의 관계)입니다. '진실–거짓'은 뜻이 서로 반대인 관계(반의 관계)이고, '과일–바나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상하 관계)입니다.

8 "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밖에 재난을 입다.'라는 뜻으로, 예기치 않게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10 (1) '날이 있는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의 일부를 잘라.'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베어'입니다. (2) '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을 문서에 적어 약속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계약'입니다. (3)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범죄 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몰수'입니다.

6주차

Day 27

본문 122쪽

1 (1) × (2) × (3) ○

2 볼기, 도술, 툇마루, 대성통곡

3 (1)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심보 (2) 방자한 (3) 탄식

5 (2) ×

6 (1) ○

7 (1) 왠지 (2) 웬일로 (3) 말로써

8 (1) [안꼬] (2) [안께] (3) [안즌]

9 (1) 먹듯이 (2) 이유 없이 (3) 틀림없이

2 옹고집의 집에 간 학 대사가 볼기를 맞고 내쫓기자, 도술을 부려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서로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보고 옹고집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3 (2)는 '눈 뜨고 못 보다'의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괴기한'은 '무서운 생각이 들 만큼 괴상하고 기이한.'이라는 뜻으로,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주 이상한.'이라는 뜻의 '괴상한'이나 '모양이나 분위기가 놀라울 만큼 이상한.'이라는 뜻의 '기괴한'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괴팍한'은 '사람의 성격이 매우 이상할 정도로 까다로운.'이라는 뜻입니다.

6 '눈을 의심하다'는 달걀값이 세 배나 치솟은 것을 보고 놀랍고 믿기지 않은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7 (1) '왜 그런지 모르게.'를 뜻하는 말은 '왠지'입니다. '웬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2) '어찌 된 일. 또는 어떠한 일.'을 뜻하는 말은 '웬일'입니다. '왠일'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3) '-로서'는 '부모로서, 대통령으로서'와 같이 자격이나 지위 뒤에 붙여 사용하고, '-로써'는 '법으로써, 쌀로써'와 같이 수단이나 방법, 원료나 재료 뒤에 붙여 사용합니다.

8 겹받침 'ㄵ'은 [ㄴ]으로 소리 납니다. 이때 뒤에 오는 첫소리 'ㄱ'은 [ㄲ]으로 소리 납니다. 겹받침 'ㄵ'이 뒤에 오는 'ㅇ'을 만나면 'ㅈ'이 뒷말 첫소리로 이어져 소리 납니다.

9 (1) '먹듯이, 오듯이, 하듯이, 다르듯이'처럼 모양이 바뀌는 낱말 뒤에 '-듯이'를 쓸 때에는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2) '이유 없이, 소리 없이'는 '이유, 소리'라는 낱말 뒤에 '없이'가 붙은 것으로, 띄어 씁니다.
(3) '틀림없이, 상관없이, 정신없이'는 '틀림없다, 상관없다, 정신없다'라는 낱말에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낱말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씁니다.

6주차

Day 28

본문 126쪽

1 (1) ×

2 (1) 고가, 사례 (2) 강탈

3 나쁘다 → 안타깝다

4 의심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③ (2) - ② (3) - ①

6 (1) 조치 (2) 멸종 (3) 인위적

7 서연

8 (1) 오는데 (2) 잃어버렸대

9 (1) 원숭이가, 여자아이들이, 부모님께서
(2) 바나나를, 노래를, 장미꽃을
(3) 먹는다, 부른다, 좋아하신다

10 (1) 떡볶이를 (2) 새들이 (3) 달려간다

1 '원숭이의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언젠가 원숭이가 멸종되는 건 아닐까?'라는 이건이의 생각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원숭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 원숭이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가 날로 커지자,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3 처음에 이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고가의 물건을 강탈하는 원숭이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원숭이들의 행동이 먹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4 '반신반의(半信半疑)'는 어느 정도 믿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백신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믿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 서연이의 말에 '반신반의'가 어울립니다.

8 (1)의 '오는데'에서 '-ㄴ데'는 뒤의 말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관련이 있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2)의 '잃어버렸대'에서 '-대'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9 '주어'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10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아 써 봅니다.

6주차

Day 29

본문 130쪽

1 (1) – ① (2) – ③ (3) – ④ (4) – ②

2 (2) ×

3 백제, 향로, 높이, 연꽃, 걸작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③ (2) – ① (3) – ②

5 (1) 교류 (2) 유물 (3) 표면

6 (1) ② (2) ①

7 (1) ① (2) ②

8 (1) 들어내자 → 드러내자 (2) 둘러쌓인 → 둘러싸인

9 (1) 배치되어 (2) 정교하게

1 백제 금동 대향로를 '꼭대기, 뚜껑, 몸체, 받침대'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 부분의 특징을 정리해 봅니다.

2 백제 금동 대향로의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을 통해 백제 시대의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짐작할 수 있고,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 표면에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코끼리나 원숭이가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해 백제 시대에도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옛사람들의 삶이나 문화와 관련된 낱말의 뜻을 알아봅니다.

5 '교류'는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오감.', '유물'은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대에 남긴 물건.', '표면'은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이라는 뜻입니다.

6 '지구(地區)'는 일정한 목적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말하고, '지구(地球)'는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로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7 (1)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찾아냄.'이라는 뜻입니다. ②에서는 '발명되었다'가 아니라 '발견되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이라는 뜻의 낱말은 '봉오리'입니다.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①에서는 '봉우리'가 아니라 '봉오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8 (1)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자.'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들어내자'가 아니라 '드러내자'라고 써야 합니다. (2) '둥글게 에워싸인.'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둘러쌓인'이 아니라 '둘러싸인'이라고 써야 합니다.

6주차

Day 30

본문 134쪽

1 (3) ○

2 태(太)

3 (1) 양지 (2) 양산 (3) 양성 반응

4 양지 → 태평양 → 태양력 → 양성 반응

1 '태양(太陽), 태양력(太陽曆), 태평양(太平洋)'에 공통으로 쓰인 '태(太)'는 모두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온도가 매우 높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은 '태양(太陽)'이고,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는 '태평양(太平洋)'입니다.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세상이나 시대.'를 '태평성대(太平聖代)'라고 합니다.

3 '양지(陽地)'는 '볕이 들어 밝고 따뜻한 곳.'이라는 뜻, '양산(陽傘)'은 '주로 여자들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물건.'이라는 뜻, '양성 반응(陽性反應)'은 '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화학적·생물학적 검사를 한 결과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4 주어진 문장 속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으며 길 찾기 놀이를 해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차례대로 늘어놓으면 '양지(陽地) → 태평양(太平洋) → 태양력(太陽曆) → 양성 반응(陽性反應)'입니다.



7주차

Day 31

본문 140쪽

1 (1) ○ (2) × (3) ○
2 해고, 무일푼, 거절
3 고생, 좋은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② (2) – ① (3) – ③
5 (1) 결심 (2) 요청
6 (1) 명성 (2) 경험
7 (1) ○
8 (1) 제작 (2) 엎친 데 덮친
9 (1) 잠 (2) 싸움

1 〈해리 포터〉 시리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2 조앤 롤링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한 뒤, 일이 일어난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니다.

3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라는 속담은 몹시 고생을 하는 삶에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마음을 먹다'는 '결심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2) '문을 두드리다'는 '원하는 곳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6 '명예'와 '명성'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체험'과 '경험'은 실제로 겪어 본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7 (1)은 걸 그룹 ○○이 고생을 하다 좋은 날이 왔다는 내용이므로 속담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와 어울립니다.

8 (1) '재료가 쓰여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다.'라는 뜻의 낱말은 '제작되다'입니다. (2) '엎친 데 덮치다'라는 표현에서는 글자의 받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9 '자다'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인 '자–'에 '–ㅁ'을 더하면 '자고 있는 상태.'라는 뜻의 '잠'이 되고, '싸우다'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인 '싸우–'에 '–ㅁ'을 더하면 '이기려고 다투는 일.'이라는 뜻의 '싸움'이 됩니다.

7주차

Day 32

본문 144쪽

1 (1) ○ (2) × (3) ×
2 손수건, 법정, 중노동, 극진한
3 어려움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② (2) – ①
5 (1) ○
6 (2) ×
7 (1) 판결은 (2) 판결을 (3) 판결하였다
8 (2) ○
9 (1) 며칠 (2) 붉으락푸르락
10 (1) 잊어버렸다 → 잃어버렸다 (2) 가픈 → 가쁜
(3) 썩인 → 섞인

1 브라운로우의 손수건을 몰래 훔친 사람은 찰리와 잭입니다. 소매치기로 몰린 올리버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석 달 동안 중노동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책방 주인 덕분에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뜨거운 맛을 보다'는 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2)에서 '틈'은 '벌어져서 사이가 생긴 자리.'라는 뜻입니다.

6 '태만한'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른.'이라는 뜻입니다.

7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은/는, 이/가'가 붙습니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을/를'이 붙습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입니다.

8 '뜨거운 맛을 보다'는 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하므로 2단 줄넘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한 (2)의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9 (1) '몇 월, 몇 년'과는 다르게 '몇 날, 몇째 날'을 의미하는 말은 '며칠'이라고 씁니다. '몇일'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얼굴빛이 변하는 모양을 뜻하는 말은 '붉으락푸르락'입니다. '울그락붉으락, 울그락불그락'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0 (1)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잃다'라고 표현합니다. '잊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숨 쉬는 속도가 몹시 빠른 것을 표현하는 말은 '가쁘'입니다.
(3)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함께 나타내는 것은 '섞다'입니다. '썩다'는 음식물 같은 것이 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7주차

Day 33

본문 148쪽

1 (3) ○
2 윤아
3 방심, 자만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③ (2) – ① (3) – ②
5 (1) 방심 (2) 태연 (3) 기색
6 (1) ② (2) ①
7 (2) ○
8 (3) ○
9 (1) 도리어 (2) 도무지

1 아들은 사라져 버린 말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이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몇 달이 지난 뒤에 도망갔던 말이 뛰어난 말 세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2 '새옹지마'는 세상 일의 좋고 나쁨은 예측하기 어려워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젠가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면 곧이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새옹지마'는 좋은 일이 다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다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인생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방심하다'는 '긴장하거나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2) '태연하다'는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라는 뜻입니다. (3) '기색'은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7 천막 주문이 취소된 일로 인해 리바이는 청바지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 일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나쁜 일이 바뀌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옹지마(塞翁之馬)'입니다.
(1) '대기만성(大器晩成)'은 크게 될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을 한 끝에 늦게 성공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3)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8 '복덩이, 걱정덩이, 심술덩이' 등에 쓰이는 '덩이'는 일부 낱말의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을 가지거나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냅니다.

9 '도리어'는 '기대했던 것이나 일반적인 것과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도무지'는 '아무리 해도.'라는 뜻으로,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7주차

Day 34

본문 152쪽

1 (1) ○ (2) ○ (3) ×
2 ①
3 (1) – ② (2) – ① (3) – ③
4 속력, 속력, 안전, 안전 속도, 교통사고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② (2) – ③ (3) – ①
6 (1) 제한 (2) 통행 (3) 정책
7 불
8 (1) ② (2) ①
9 (1) ① (2) ① (3) ①
10 (1) 실재로 → 실제로 (2) 나추면 → 낮추면
(3) 사망율 → 사망률

1 안전 속도 5030은 자동차가 전국 도시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주택가 등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달릴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3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제동 거리가 길어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속력을 낮추면 제동 거리가 짧아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지고 보행자 사망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4 글쓴이는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7 '불(不)–'은 일부 낱말의 앞에 붙어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9 (1) ①에서 '확대하다'는 모양이나 규모 등을 원래보다 더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②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몹시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는 뜻이므로 '학대하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 ①에서 '제한하다'는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정하거나, 그 정도나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②에서는 의견이나 안건으로 내놓는다는 뜻이므로 '제안하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3) ①에서 '시행하다'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일반 대중에게 알린 뒤에 실제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②에서는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해낸다는 뜻이므로 '수행하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10 (1)에서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실재로'가 아니라 '실제로'입니다. (2)에서 '수치를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나추다'가 아니라 '낮추다'입니다. (3)에서 '어느 특정 인구에 대한 일정 기간의 사망자 수의 비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사망율'이 아니라 '사망률'입니다.

7주차

Day 35

본문 156쪽

1 (3) ○
2 (1) 경력 (2) 이력서 (3) 사극
3 변호사
4 (3) ○
5 (1) ① (2) ④ (3) ② (4) ⑤ (5) ③

1 '사극(史劇), 사적(史蹟), 한국사(韓國史)'에 공통으로 쓰인 '사(史)'는 모두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경력(經歷)'은 '이제까지 가진 학업, 직업,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는 뜻, '사극(史劇)'은 '역사에 있던 일이나 사람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라는 뜻, '이력서(履歷書)'는 '자신이 거쳐 온 학업이나 직업, 경험 등의 발자취를 적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3 '역사가(歷史家)'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 '한국사(韓國史)'는 '한국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辯護士)'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낱말에는 역사를 뜻하는 사(史)가 아니라 직업의 뜻을 더하는 말인 '사(士)'가 들어갑니다.

4 주어진 대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인간 사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하고 망하면서 변해 온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뜻하는 '역사(歷史)'입니다.

5 주어진 문장에서 '한국사(韓國史), 사극(史劇), 역사가(歷史家), 삼국사기(三國史記), 사적(史蹟)'의 정확한 뜻을 보기 에서 찾아 그림 속 표지판에 번호를 알맞게 써 봅니다.



8주차

Day 36

본문 162쪽

1 (3) ○
2 ③ → ① → ② → ④ → ⑤
3 재앙, 화난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① (2) – ③ (3) – ②
5 (1) 빼꼼히 (2) 후다닥 (3) 우물쭈물
6 (1) 병 (2) 소리 (3) 손
7 (1) ○
8 (1) 꽁꽁 (2) 꼭꼭
9 (1) 돋우는 (2) 야단법석 (3) 뜨였다

1 이 글의 종류는 일기입니다. 일기는 그날 겪은 일과 그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입니다. (1)은 설명문, (2)는 편지, (4)는 기사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이 글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여 봅니다.

3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속담은 남의 재앙을 더 커지게 만들거나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소품'은 '작은 가구나 장식품.', '돋우다'는 '의욕이나 감정을 부추기거나 일으키다.', '삭이다'는 '긴장이나 화를 풀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5 '빼꼼히'는 '문 등을 살며시 아주 조금 여는 모양.', '후다닥'은 '일을 서둘러 빨리 해치우는 모양.', '우물쭈물'은 '말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6 '들리다[1]', '들리다[2]', '들리다[3]'은 형태는 같지만 '병에 걸리다.', '소리가 귀를 통해 알아차려지다.', '물건이 손에 잡히다.' 등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동형어입니다.

7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속담은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2)는 바로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속담은 "등잔 밑이 어둡다."입니다.

8 (1)에서는 다친 손가락을 붕대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꽁꽁'을 쓰고, (2)에서는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꼭꼭'을 씁니다.

9 (1) '의욕이나 감정을 부추기거나 일으키다.'는 '돋우다', (2) '시끄럽고 어수선하게 행동함.'은 '야단법석', (3) '눈에 보이다.'는 '뜨이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8주차

Day 37

본문 166쪽

1 ②
2 (1) 요청, 동참 (2) 연설, 경각심
3 (3) ○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① (2) ② (3) ③
5 (3) ×
6 대응, 태양광, 실천
7 (2) ○
8 (1) [차며] (2) [포겸]
9 (1) 개수 (2) 팻말

1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여름에 스웨덴에서 발생한 폭염과 산불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계기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 그레타 툰베리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1인 시위로 시작하여 전 세계에 기후 위기 대응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3 '바람을 일으키다'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참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구제하다', '어떤 일을 급하게 빨리하도록 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촉구하다'입니다.

5 '자금'과 '자본', '직면하다'와 '당면하다'는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에서 '경각심'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뜻하는 반면에, '경외심'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마음.'을 뜻하므로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6 '어떤 일이나 상황에 알맞게 행동을 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대응', '태양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태양광', '이론이나 계획, 생각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김.'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실천'입니다.

7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은 (2)입니다.

8 앞 글자의 받침이 뒤에 있는 글자의 첫소리 'ㅇ'으로 이어져 각각 [차며], [포겸]으로 소리 납니다.

9 한 개씩 낱으로 셀 수 있는 물건의 수효를 뜻하는 낱말은 '개수', 패를 단 말뚝을 뜻하는 낱말은 '팻말'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8주차

Day 38

본문 170쪽

1 (1) ○ (2) ○ (3) ○ (4) ×
2 수민
3 (1) 콜레라, 원인 (2) 안개, 방향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4 (1) – ③ (2) – ① (3) – ④ (4) – ②
5 (1) 둔감 (2) 탈수 (3) 풍토병
6 (1) ○
7 (1) ○
8 (1) 반장으로서 (2) 가시로써
9 (1) 맑은∨물을∨마실∨수∨있다.
(2) 놀이동산에∨갈∨수∨있을까?

1 콜레라는 인도 벵골 지방의 풍토병이었고, 1800년대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2 콜레라는 오염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로 전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3 도시 전체에 콜레라가 퍼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안개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이제까지는 아니던 것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이 되어서야.'라는 뜻의 '비로소'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2) '오히려'는 '일반적인 예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거나 반대가 되게.'라는 뜻이고, (3) '절대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7 (2)에서 준희가 앉자마자 의자가 부서진 상황은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한자 성어인 '오비이락(烏飛梨落)'과 어울립니다.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8 (1)에서는 '반장'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내므로 '-으로서'를 써서 '반장으로서'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2)에서는 '가시'라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으로써'를 써서 '가시로써'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9 (1) 맑은물을마실수있다.

맑	은		물	을		마	실		수		있	다	.

(2) 놀이동산에갈수있을까?

놀	이	동	산	에		갈		수		있	을	까	?

8주차

Day 39

본문 174쪽

1 (1) ○ (2) ○ (3) × (4) ○
2 ⑤ → ② → ④ → ①
3 (1) – ② (2) – ①
4 광복절, 독립운동가, 독립, 숭고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5 (1) – ② (2) – ① (3) – ③
6 (1) 탄압 (2) 폐교 (3) 국권
7 (1) ○
8 (1) ① (2) ② (3) ①
9 (1) 훈날 → 훗날 (2) 쏘다부으며 → 쏟아부으며
(3) 고치하기 → 고취하기

1 일제에 맞서 독립을 이루는 데 헌신한 이회영 선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에 선생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3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설립된 신흥 무관 학교에서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교육과 함께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 견학 기록문에는 견학 장소, 견학 목적, 보고 들은 것,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와 어법

6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에서 찾아 써 봅니다. '국권'은 '나라가 행사하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탄압'은 '힘으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 하게 함.', '폐교'는 '학교의 운영을 그만둠.'이라는 뜻입니다.

7 '목숨을 바치다'는 '어떤 대상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하다.'라는 뜻이고, '세상을 떠나다'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2)에서는 '매우 깊게 잠이 들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다.'라는 뜻의 '세상 모르다'를 활용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8 (1)에서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뜻으로, ②에서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새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에서 '수여하다'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주다.'라는 뜻으로, ①에서는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뜻의 '수려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3)에서 '숭고하다'는 '뜻이 높고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②에서는 '몹시 미안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뜻의 '송구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9 (1)에서 '시간이 지나 뒤에 올 날.'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훗날'이라고 써야 합니다. (2)에서 '애정, 열정, 노력, 물자 따위를 아낌없이 많이 보내거나 바치며.'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쏟아부으며'라고 써야 합니다. (3)에서 '생각이나 마음, 의욕 등이 강해지도록 하기.'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고취하기'라고 써야 합니다.

8주차

Day 40

본문 178쪽

1 (2) ○
2 (1) – ② (2) – ① (3) – ③
3 강화, 악화
4 (1) ② (2) ① (3) ④ (4) ③
5 (1) 변천 (2) 변화무쌍 (3) 변동 (4) 화학
6 변화, 강화

1 '변동(變動), 변천(變遷), 변화(變化), 변형(變形)'에 공통으로 쓰인 '변(變)'은 모두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변화(變化)'는 '무엇의 모양이나 상태, 성질 등이 달라짐.'이라는 뜻, '변동(變動)'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 '변형(變形)'은 '형태나 모양, 성질 등이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3 '강화(强化)'는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게 함.'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높임.'이라는 뜻, '악화(惡化)'는 '일이나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감.'이라는 뜻입니다. '대화(對話)'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낱말에 쓰인 '화(話)'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4 '화학(化學)'은 '물질의 구조, 성분,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는 자연 과학의 한 분야.'라는 뜻, '강화(强化)'는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게 함.'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높임.'이라는 뜻, '악화(惡化)'는 '일이나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감.'이라는 뜻, '변화무쌍(變化無雙)'은 '변하는 정도가 비할 데 없이 심함.'이라는 뜻입니다.

5 '변동(變動)'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 '변천(變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고 변함.'이라는 뜻, '화학(化學)'은 '물질의 구조, 성분, 변화 등에 관해 연구하는 자연 과학의 한 분야.'라는 뜻, '변화무쌍(變化無雙)'은 '변하는 정도가 비할 데 없이 심함.'이라는 뜻입니다.

6 주어진 대화 내용으로 보아 '무엇의 모양이나 상태, 성질 등이 달라짐.'이라는 뜻의 '변화(變化)'와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게 함.'이라는 뜻의 '강화(强化)'가 어울리는 낱말입니다.



주간 테스트

1주차

정답과 해설 2쪽

1 ②	2 ③	3 ③
4 ②	5 수양, 실패, 교훈	
6 ④	7 ③	8 ④

3 '비율'의 뜻을 나타낼 때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율'로 적고, 나머지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할인률'이 아니라 '할인율'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4 '맨발'은 '맨- + 발', '쌀값'은 '쌀 + 값', '기와집'은 '기와 + 집'으로 나눌 수 있는 낱말, 즉 복합어입니다. '바위'를 '바'와 '위'로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지므로 단일어입니다.

5 '반면교사(反面敎師)'는 잘못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7 빈칸에는 '부부로서의 짝.'이라는 뜻의 '배필'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8 'ㄴ' 받침은 'ㄹ'의 앞에서 [ㄹ]로 소리 나므로 [날로]라고 발음해야 알맞습니다.

2주차

정답과 해설 4쪽

1 ②	2 ④	3 ③
4 ①	5 이끼, 노력, 발전	
6 ④	7 ④	8 ④

1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는 '태도나 눈치 등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통 때와 같이 행동하거나 대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이고, '눈 깜짝할 사이'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3 '가정이나 국가의 경제적 형편.'을 뜻하는 낱말은 '살림사리'가 아니라 '살림살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4 '덧버선'에서 '덧-'은 '겹쳐 신거나 입는.'이라는 뜻, '햇과일'에서 '햇-'은 '그해에 난.'이라는 뜻, '헛수고'에서 '헛-'은 '보람 없는.'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말입니다.

6 '어깨가 무겁다'는 '힘겹고 중대한 일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의 부담이 크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7 ①의 '길'은 '사람이나 차 등이 지나다닐 수 있게 땅 위에 일정한 너비로 낸 공간.', ②의 '길'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거쳐 가는 공간.', ③의 '길'은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이라는 뜻입니다. ④와 ㉡의 '길'은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3주차

정답과 해설 6쪽

1 ③	2 ②	3 ④
4 ③	5 지위, 분노, 무시	
6 ②	7 ③	8 ④

3 '속에 쌓여 있던 감정 등이 한꺼번에 거세게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의 낱말은 '폭팔하다'가 아니라 '폭발하다'입니다.

4 '인종'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처럼 피부, 머리색, 골격 등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나눈 사람의 종류.'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6 '을/를'은 앞말에 붙여 쓰고, '이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는 '채'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7 '물불을 가리지 않다'는 '위험이나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손뼉을 치다'는 '어떤 일에 찬성하거나 좋아하다.'라는 뜻, '가슴을 쓸어내리다'는 '곤란한 일이나 걱정이 없어져 안심을 하다.'라는 뜻, '앞뒤를 가리지 않다'는 '일 등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4주차

정답과 해설 8쪽

1 ①	2 ③	3 ④
4 ④	5 버릇, 습관, 조심	
6 ④	7 [결쩡]	8 ②

1 '가슴이 뜨거워지다'는 '감정이 심해져 감동이 생기다.'라는 뜻, '가슴이 시원하다'는 '기분이 매우 좋고 가뿐하다.'라는 뜻, '가슴에 새기다'는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2 '보름'은 '십오 일 동안.'을 말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에서 축제가 열린다.'에서 '보름'은 '음력으로 그달의 십오 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3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이라는 뜻의 낱말은 '뒷굼치'가 아니라 '뒤꿈치'라고 써야 합니다.

4 ①, ②, ③은 보기 의 '근심 - 걱정'과 같이 뜻이 비슷한 낱말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감옥'과 '처벌'은 뜻이 비슷한 낱말이 아니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7 '결정'은 'ㅈ'이 'ㅉ'으로 바뀌어 [결쩡]으로 소리 납니다.

8 남자현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므로 '갇히다'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갇힌'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5주차

정답과 해설 10쪽

1 ② 2 ② 3 ②
4 ④ 5 봉양, 은혜, 효심
6 ① 7 ④ 8 [망무가내]

1 '발 벗고 나서다'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라는 뜻, '발을 맞추다'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행동이나 말 따위를 하나의 목표나 방향을 향하여 일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3 '음식물이나 자연물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상하거나 나쁘게 변하다.'의 뜻을 가진 낱말은 '썪는'이 아니라 '썩는'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4 '열기'는 '뜨거운 기운.', '건포도'는 '말린 포도.', '송아지'는 '어린 소.'라는 뜻입니다. '희귀하다'는 '많이 없거나 쉽게 만날 수 없어서 매우 특이하거나 귀하다.'라는 뜻으로, ④는 같은 의미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6 ①~④는 모두 '이상'이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①은 '이상 한 파', ②는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 없다.', ③은 '이상 행동', '이상 반응', ④는 '이상을 추구하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6주차

정답과 해설 12쪽

1 ④ 2 ③ 3 ②
4 ④ 5 ② 6 ③
7 ② 8 ①

3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라는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씁니다.

4 ㉠에는 '빌린 것을 도로 돌려주지.'라는 뜻의 '갚지'가 들어가야 하고, ㉡에는 '무엇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비행기 등에 올려놓지.'라는 뜻의 '싣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5 '무쳐'는 '나물 등에 양념을 넣고 골고루 섞이게 하여.'라는 뜻이므로 ②에서는 '어디에 놓여 다른 물질로 덮여 가려져.'라는 뜻의 '묻혀'를 써야 알맞습니다.

6 '증서'는 글자 그대로 [증서]라고 소리 납니다.

7 '대성통곡'은 '큰 소리를 내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청천벽력'은 '(비유적으로)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치는 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재앙이나 사고.', '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세상이나 시대.', '반신반의'는 '어느 정도 믿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의심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7주차

정답과 해설 14쪽

1 ① 2 ② 3 ③
4 ③ 5 서리, 불행, 비유
6 ③ 7 ① 8 ③

1 '무일푼'은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이라는 뜻이고, '무관심'은 '흥미나 관심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2 ①에서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뜻, ②와 보기 에서는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라는 뜻, ③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가는 길이나 방향.'이라는 뜻, ④에서는 '사물의 존재나 형태를 구별하여 알 수 있는 눈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3 '마굿간'이 아니라 '마구간'이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4 '보조금'은 '보조 + 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 '(사람이 띠를) 몸에 알맞게 조이도록 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매다'입니다.

8 ㉢에서 (주로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만큼'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8주차

정답과 해설 16쪽

1 ① 2 ④ 3 ④
4 ③ 5 ③ 6 ③
7 ③ 8 ③

1 '갓'은 '이제 막.'이라는 뜻으로, '금방', '방금' 등과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2 ①에서 '정상'은 '특별히 바뀌어 달라진 것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는 뜻, ②에서 '정상'은 '산의 맨 꼭대기.'라는 뜻, ③에서 '정상'은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라는 뜻, ④와 보기 에서 '정상'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3 '긴장이나 화를 풀어 마음을 가라앉히며.'라는 뜻의 낱말은 '삭히며'가 아니라 '삭이며'입니다.

6 '한 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가짐.'이라는 뜻의 '독립'은 [동닙]으로 소리 납니다.

7 '바람을 일으키다'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8 빈칸에는 '변하다'라는 뜻을 지닌 '변(變)'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